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터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 들고 나는 그자리서 해결해야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인공은데도 불구하고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덥고 촉촉이 바람이네요. 마음이란 고뇌가 바로 부처라는 이름이요.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답다 싶으면 물 속으로 뛰어들어 가구요. 또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 들어가구요. 혹은 마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몸종이가 여겨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시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부터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몸종이도 마음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더붙어 있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백날 가도 깨우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마음이라는 것은 적이나 크나 동시에 같습니다. 내가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그런 고로 내 몸 속에는 바로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돌아서 현재로 다시 오는 그 길에서, 우리가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



그림 · 최주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주인이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가지곤 자꾸 이렇고 저런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참견 다 하고 말입니다. 영계성이라는 것은 이런 도리를 알고 죽은 영계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겠다, 저리로 가겠다, 먹지 말라. 나가지 말라. 운동 야 단박성을 하니까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신분열이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런 것을 병원에 데리고 가봤던들 뭘 하며 악을 먹어왔던들 뭘 하겠습니까. 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하나를 하나에다가 붙이면 물방울 하나가 되지 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 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숫자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도.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는데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

(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광개소왕에 들어가면 벗어날 길이 없듯이 말입니다. 향을 쐬면 좋은 향이 즉 향내 나는 그 향수는 선종(善種)의 인연이요. '바다의 향수' 이러죠. 바다의 물이 다 향수같다면 우리 몸에도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전체가 향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나 선종의 인연이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하여금 속도 빠르거나 불기도 나오고 벌 일이 다 벌어진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반면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 가정은 예전의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속 안팎이고,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돼서, 고리와 고리가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요.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되지. 그래서 과거는 돌아갔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 뜻은, 이미 내 몸종이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내 몸종이 속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이 속에, 인과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전성이라는 그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만 연결됩니다. 또 살생도 물론 거기에 그 8/9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면 속병을 앓은 것을 대처해서 또 자식이 속병을 앓은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앓아오지 않게 대처해서 또 자식이 그 앓아오지 않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겁입니다. 아주.

개미가 개미를 낳지 않는 종자를 낳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낳는 거 낳는 게 낳았어. 만약 들연변이가 있다면 낳는 거 낳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염주알을 꿰어 백팔염주를 꿰어놔요. 자기의 종자가 종자대로 이렇게 꿰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꿰어져 있어. 우리 사는 것이 염주가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듯이 우주의 전체를 꿰어놓은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유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끊으려

16면으로 계속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오고 드는 구멍이 한구멍이니 거기서만이 대처 할 수 있어요

나. 땀방울이 하나 나올 때에 둘 셋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둘 셋씩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그래서 제일 첫번째에 내 몸 한덩어리 개체를 불국토라고 한다. 내 불국토를 건설하지 못하면 바깥 불국토를 건설하지 못한다 이라는 거예요.

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느냐 하면 기필코 우리는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이 몸 속에는 세계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종이가 지구처럼 그 세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 길이라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과,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말 이전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하십시오. 때로는 욕구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굴러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라 이런 겁니다.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인연, 즉 인과로서 많은 인연을 둔 사람, 세균성을 많이 영접한 사람, 즉 말하자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거나 하는 문제들의 인연을 말합니다.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사람. 이런 점이 없잖아 있는 게

육의 부모 법의 부모 같기에 동시에 믿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 오는 법 없죠

뭐냐 하면요,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관계에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의 소굴을 때려잡는다는 거나 한다면,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함으로써 여지없이 그게 유전이 돼서 '내 자식들도 그랬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부터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거죠. 모두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자기가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중심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

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잘하고, 모든 게 바깥으로만 하니깐요. 안에 자아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마구 끌려다니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끌려다니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죽 말하자면, 얼마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서 "너희들,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애들 데려다가 놀면서 그냥 운동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가 들어와서 안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단 정신분열자가 되는 거죠.

다. 항상 들어서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만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종이 떨어진 것을 주위보라고 하시면서 "남새는 어떡하냐?"하고 물으니 "향을 쐬면 종이입니다"했지요. 또 가다가 새가 떨어진 것을 주위보라고 하니가 벌레나고 썩은 배새가 나거든요. "그런 무슨 남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배새가 남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향을 쐬면 종이를 따르느냐? 아니면 생선 뉘였던 썩은 새끼를 따르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말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심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0

열매는 씨앗에서 생겨났고 그 씨앗은 이전 열매에서..

그 무엇이 씨를 틔워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나를 싹틔운 그는 누구인가? 곧 참나무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종성은 그 씨앗을 낳고서 '지금의 나'에게만 매달리기 때문에 온갖 고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씨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최초의 씨앗은 이제 지금의 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열매가 열렸다면 그 열매는 곧 처음의 씨앗과 다르지 않으니 지금의 나 속에서 참 나를 찾아야 한다.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나오므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어떠한 작용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구를 집어삼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낳을 수 없는 마음의 근본보다 더할 것이 없다. 광대하고 적적하면서도 신령한 내 안에 남김 없이 깃들어 있으니 내 안의 불씨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 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인가. 목수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설계하여 짓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마음먹은 대로 자식을 낳지는 못한다. 어떤 부모라도 목수가 집을 설계하듯 그렇게 자식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설계한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제기하는 삶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사는 이치를 보라. 집을 짓고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

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 집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이 육신을 지어 놓고 들어가 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라. 나의 육신은 마치 내가 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영원치 않아 무상하다는 것을 지켜 보라. 나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지켜 보라. 지켜 보면서 과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나왔다가 어느 구석에서 사라지고가는 허망한 존재이면서, 그나마 고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통받다가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지를 받게 알아야 한다. 정말로 그러하다. 현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주재자, 참 자기가 있다.

육신이 나인가, 의식이 나의 주재인가, 의지가 나의 주재인가. 육신이 내가 아니고 의식이 내가 아니고 의지도 내가 아니다. 그러한 나는 비록 애지중지 해왔던 해도 다 비실재요 가화할이요 인연 소산일 뿐이다. 그러므로 허망하다 함도 당연하다. 종성은 여태껏 그러한 나를 위해 살았고, 그러한 나가 나의 줄로 아는 그릇된 소견을 갖고 있었기에 말이다.

열매는 씨앗에서 생겨났고 그 씨앗은 이전 열매에서 생겨났고, 그 이전 열매는 또다시 그 이전의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열매는 미래로 또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어느 때의 열매를 '이것이 열매다' 하겠는가. 고로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열매의 참

성품을 찾으라는 것이다.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에 영양분을 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본래 성품 자리를 밝혀야 한다. 본래 성품 자리인 주인공이야말로 곧 사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요, 나를 데려갈 이도 주인공이다. 가을에 잎 떨어진다니 나무가 뿌리째 죽는 것은 아니다. 뿌리는 그대로 살아서 물이 오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핀다. 나무가 그러한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듯 인간도 제 뿌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뿌리가 있고 또 우주 전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 빛보다 더 빠르게 우주 전체 어디든지 연결되어 비취를 수 있는 신통 모종의 한마음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나의 전연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말을 했다. 내가 지금 움직였다. 말하고 움직인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말하고 움직인 그것을 누가 했는가? 바깥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지할 수가 없다. 그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 자기라고도 한다. 자동자는 운전자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주인이라 하고 운전자를 그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일겠는가. 주인공을 모른다면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보라. 들이쉬고 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와 같이 생활 속에서 일체 만민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무엇이냐.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지금도 살고 있고 가고 있는 근본. 이런 근본이 주인이 아니려면 주인이 있다는 것은 증명도 못할 것이다.

본고 듣고 앎고 서고 말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소수영영하게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듯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일체가 있고 또 우주 전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 빛보다 더 빠르게 우주 전체 어디든지 연결되어 비취를 수 있는 신통 모종의 한마음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나의 전연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중생으로서의 나(我)가 부정된 그 지점에 중생의 나 아닌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바로 참된 나의 주인공 한 번도 나지 않았으므로 아예 죽을 바가 없는 무량겁의 나. 더러움에도 아예 물을 줄 모르고 괴로움이란 것로부터도 출연해 초월하여 불생불멸, 무중불감, 불부정의 지고지라한 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협찬 : 김재환

법공양의 생활화 · 연대화 · 세계화